

또 다시... '흑산공항 건설' 심의 중단

국립공무원 결론 못내 안전 자동 폐기 사업자 재보완 후 재개 전남도 "국립공무원, 경제성·안전성까지 논의하는 건 부적절"

신안 흑산공항 건설 사업 추진이 또 다시 중단됐다. 찬반 논리가 팽팽히 맞선 탓에 국립공무원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고, 사업자인 서울지방항공청이 계획안을 보완해 다시 제출하기로 하면서 심의 안전이 자동 폐기됐기 때문이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흑산도에 소규모 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국립공무원위원회 심의를 중단했다.

서울항공청이 지난 1일 제124차 국립공무원위원회 개최 안전인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 재보완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현재 정회

중인 제124차 위원회가 자동 폐회됐다. 흑산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국립공무원위원회 심의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항공청은 지난 2016년 10월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제출했고, 다음달 환경부는 제117차 국립공무원위원회 심의를 열어 심의했다. 하지만 선박 운항 강화 등 제3의 합리적 대안 제시와 경제성, 조류 충돌 위험성 등에 대한 재검토 등을 이유로 보완 요청이 이뤄졌다.

이후 2017년 7월 서울항공청이 보완 서류를 제출했지만 환경부가 철새 대책과 환경영향 증가 등에 대한 환경수용력 등에 대한 재보완을 요청했고, 올 2월 서울항공

청이 재보완 서류를 제출하면서 7월에 두 번째로 제123차 국립공무원위원회 심의가 열렸다.

그러나 이번 심의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해 '계속 심의' 결정이 내려졌고, 환경부는 환경성·경제성·안전성 등 전문가 검토와 지역주민 의견 청취, 종합토론회 등을 거쳐 지난달 제124차 국립공무원위원회 심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또 다시 결론을 내지 못해 정회가 결정됐고, 환경부는 이달 5일 이전에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었으나 서울항공청의 서류 보완 요청으로 심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서울항공청이 재보완 서류를 추가 보완해 다시 제출하면 심의를 다시 열어 절차를 속개할 방침이다.

서울항공청은 통행량 데이터, 자연환경 조사, 활주로 안전성, 지역경제 파급력 등을 더 보완한 서류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보완 작업이 얼마나 걸릴지 불투명한 탓에 흑산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남도와 신안군, 지역주민들은 섬 주민 교통 불편 해소와 관광 활성화를 이유로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는 환경 훼손과 경제성, 안전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흑산공항 건설사업을 놓고 환경에 무게를 둔 국립공무원위원회가 환경성 외에 경제성과 안전성까지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사업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잠시 중단한 것인만큼 반대 논리를 해소할 객관적 자료를 보완해 다시 심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이러니 부동산정책 믿겠나

靑·부동산 정책·사정기관 고위공직자 46% 서울 강남에 주택 보유...전국 2주택도 47%

심상정 의원 639명 전수조사

청와대와 국토부 등 부동산 관련 정책 기관과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의 46%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회의원회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청와대, 행정부처(1급 국가공무원 이상) 및 그 관할기관 부처장 등 총 639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고위공직자의 33%가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용산을 포함할 경우에는 그 비중은 36%로 상승했다.

또 강남3구 주택 소유와 관련 없이 전국에 '2주택 이상'을 비율은 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청와대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의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은 46%였다. 부동산 관련 세제·금리·공급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고위공직자들의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은 기획재정부 54%, 한국은행 50%, 국토교통부 34% 순이었다. 강남3구에 용산을 포함하면 한국은행이 88%, 기재부는

62%, 국토부는 34% 순이었다.

사정기관 고위공직자의 강남3구 주택 보유비율도 국정청 80%, 공정거래위원회 75%, 금융위원회 69%, 대검찰청 60%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정부기관' 고위공직자들의 강남3구 주택 보유비율이 29%란 점에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다만 청와대, 정책 및 사정기관 고위공직자 중 전국에 걸쳐 2가구 이상 주택 보유비율은 48%로 '이외의 정부기관' 46%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심상정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정부 기관의 고위공직자 중 46%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그동안 왜 정부가 전국 주택 보유자 중 1.1%(15만 가구)에 불과한 중부세 인상 대상자에게 깨달을 만한 자질한 대책을 할애했는지 이해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태상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고위공직자부터 주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1가구1주택 등을 우선수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5일 오후 2시 TV 생중계

오는 5일 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TV로 중계된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선고 공판은 5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사자인 이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 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만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언론사에 송출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상회담장 미술사 사진 공개 청와대가 지난달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회담 당시 찍었던 공식 사진이 아닌 일반 수행원들이 촬영하거나 비공식 사진인 'B' 컷을 공개했다. 평양 목란관에서 열린 만찬에서 최현우 미술사가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미술공연을 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전남 해역 황백화 현상 ... 김 생산 어찌나

고흥·진도 등 피해...채묘 시기 늦추고 상황 주의

본격적인 생산 철에 접어들어 김 양식 어민들이 때 이른 황백화 현상에 한숨짓고 있다. 수산당국은 채묘 시기를 늦추고 바다 상황을 주시하도록 지도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국 생산량의 4분의 3가량을 차지하는 김 주산지 전남해역에 황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고흥 해역을 중심으로는 황백화 조짐이

나타나고, 진도 등 채묘를 마친 일부 양식 어장에서는 이미 황백화 피해가 발생해 올해 김 작황을 망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황백화는 바닷물에 산소나 영양 염류가 부족할 때 김이 누렇게 변하는 현상이다. 통상 수온이 올라가는 3월 이후 나타나지만, 재작년부터는 9월부터 피해가 발생하

고 있다.

올해의 경우 현재 수온은 채묘에 적합한 22도 이하로 내려갔으나 여름 내내 지속한 고수온 현상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수산당국은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더욱이 재고량이 많아 김 가격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양식 어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전남에서는 황백화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2016년산) 물김 생산량이 많이 줄어든 바 있다.

지난 겨울과 봄에는 충남과 전북 등에서 황백화가 폭넓게 발생했지만, 전남 해안의

피해는 크지 않았다.

전남도는 최근 진도, 해남, 고흥, 완도, 신안 등 김을 생산하는 연안 사·군에 공문을 보내 수온이나 영양염류 농도에 맞춰 김 채묘(종자 불이기) 시기를 조절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립수산과학원도 황백화 피해를 우려해 채묘를 늦출 것을 권고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빨리 생산하고 싶은 어민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50~60일이면 생산이 가능한 만큼 채묘를 다소 늦추는 게 좋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美 아서 애스킨·佛 제라드 무루·加 도나 스트리랜드 노벨 물리학상 공동 수상

올해 노벨 물리학상에 미국 아서 애스킨(왼쪽), 프랑스 제라드 무루(가운데), 캐나다 도나 스트리랜드가 공동수상자로 결정됐다.

왕립 스웨덴 과학 아카데미는 2일(현지시간) 2018년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아서 애스킨, 제라드 무루, 도나 스트리랜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3명의 수상자는 레이저 물리학에 공헌한 연구자들이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이들 연구자의



발명이 "레이저 물리학 분야에 대변혁을 가져왔다"며 "선진 정밀기계가 탐험되지 않은 연구 분야와 여러 산업, 의학 분야 적용의 새 지평을 열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임야

지분물건/문중산 환영
신속처리.010-3605-5000

투자자 모집

경/공매 입찰/낙찰물건
근저당/소유권이전으로 법적보장!
(주)오천경매.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수강생 모집

DIY 이동식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 목조주택, 펜션, 농막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9월 ~ 12월 매주 화요일 저녁7시~9시

남부대학교 삼관 ☎ 062-970-0082~3
9월 ~ 12월 매주 목요일 저녁7시~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저녁7시~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펜션·가든 부지 매매

- ▶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 ▶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 ▶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 ▶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 ▶ 장성 편백속 5분거리
- ▶ 문수사 단풍속 2분거리

010-3768-0615 주인 직매
010-3799-3830

내 아이의 미래를 바꿀 교육 글로벌 에듀센터

순천 최대규모의 교육시설과 함께하실
사업자 분들을 초청 합니다!!

글로벌 에듀센터는 국제학교 개념으로 설립되는 대형 융복합 학원 교육시설입니다.

문의 : 02-502-8898 | 서울본사

파격가 임대!!

임대가 평균 600만원(전세가능)

1층 입점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문구점, 약국, 편의점, 안경점 등
2층, 3층 Kids Cafe, 영어도서관, 스피터학원, 입시상담, 심리상담(치료), 유학컨설팅, 과학, 레고, 로봇 등

권리금 없이 시세로 임대
100%전세도 환영

성심부동산 010-6665-7355 대표 김종호